

부활 논쟁

QT는 Quiet Time의 약사로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 훈련입니다.

01 찬양과 기도



〈오늘의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통일 16)

부활

C. Wesley, 1742

보통으로

내 주님은 살아계서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음 19:25)

170

BRADFORD: 863&

G. F. Handel, 1741

1. 내 주님을 구하소서
2.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3. 그대 주를 찬양하며
4. 나의 영혼을 구하여 주시니

02 본문 읽기



마가복음(Mark) 12:18-34

본문 말씀을 2~3회 읽은 뒤 문맥을 고려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 또는 의문이 생기는 말씀에 밑줄 긋고,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18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19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0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21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22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23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24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25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26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28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29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03 묵상하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질문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여백에 기록하십시오.

04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

05 기도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내게 주시는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나의 기도

부활 논쟁

본문 : 마가복음(Mark) 12:18 - 12:34 찬송가 170장

권위 논쟁, 세금 논쟁에 이어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논쟁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와 오해를 드러내십니다.

•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2-34절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서기관을 칭찬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옳다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그를 칭찬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자기 논리나 진영을 벗어나 옳은 것은 옳다 겸허히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8-27절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을 통해 부활을 믿는 이들의 오류를 지적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모세의 글로(출 3:6) 그들의 무지와 오해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족장들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것 자체가 그들이 죽어 사라진 것이 아닌 증거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장차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 사실을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자, 우리 믿음의 정수입니다(고전 15:12-20).

24-27절 사두개인의 오해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지만, 그마저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자신의 신념을 더 믿었습니다. 우리도 전제와 편견을 가진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늘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28-33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이었고(신 6:5; 레 19:18) 율법의 대가인 서기관이 인정한 것이었으며, 예수님도 다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이 정신을 망각한 결과 율법 준수가 도리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 행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 기도

공동체-제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날마다 배우게 하소서.
열방-아프리카 지역은 세계 다른 지역보다 타국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자들이 많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치를 통해 주민들이 자국에서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3월30일 (월) — 마가복음 12:18-34

주제 :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기준이 되시니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자.

핵심 질문 :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지식과 계명은 무엇인가?

1. 도입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지각은 어두워진다. 비뚤어진 마음과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어리석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 속에 있던 주님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답하시며, 말씀의 핵심과 본질을 밝히신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지식과 계명은 무엇인가?

2. 본문

부활 논쟁- 사두개인들의 조롱하는 질문을 듣고 부활 이후의 상태를 밝혀 주신다. 유물론적 사고에 갇힌 이들은 지금도 부활을 부정하고 조롱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결될 것이다. 부활에서 새 창조를 목격한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는 삶으로 소망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자 요약이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된다.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도피적 영성이나 인본주의적 영성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갖자.

신앙의 본질-주님 말씀에 응답하여 서기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대답하여 칭찬을 받는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실천이 신앙의 시금석이다. 행함이 없는 예배는 공허하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3. 결론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된다, 사적 신앙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정당화하거나 균형을 잃게 된다. 기존의 고착된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낯선 진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본질을 질문하고 주님의 대답을 경청하자.